Market Index / 28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169.29	▼ 673.87	▲ 78.50		1USD	1468.25	1417.75	1EUR	1406.37	1351.49
-54.57	-24.24	+1.79		100￥	1015.28	980.36	1CNY	209.20	189.28

‘야밤 택시 잡기 전쟁’ 이젠 끝나려나

정부, 택시 부제 해제·심야 호출료 인상 등 추진
제주 5부제 방식… 10월말까지 한시적 해제 중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해 심야 택시난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낮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호출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리(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현재 나흘간 운행하고 하루 쉬는 택시 부제(5부제)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해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택시 부제 해제는 10월말까지 이어진다. 올해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수~일요일, 법인택시는 월~금요일에 운행하고 있다. 만약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면 제주에서도 모든 택시의 전일 영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적자 한전 제주 부동산 속속 매각

이도동 제주전력지사 옛 사옥 33억8200만원에 매각
서홍동 사택도 주차장 건립 위해 서귀포시가 매입

역대급 적자로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공사가 자산 매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 보유한 유휴 부동산도 속속 매각되고 있지만 이들 중 ‘알짜배기’ 부동산을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재무개선 방안의 하나로 옛 사옥, 사택 부지 등 도내에 보유한 유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제주시 이도2동 제주전력지사 맞은편 옛 사옥(토지면적 1469.5㎡)을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내고 6차례 유찰 끝에 33억8200만원에 낙찰돼 지난 8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옛 사택 부지(3946㎡)는 지난 2017년부터 보상 협의가 이뤄지는 등 매각 절차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서귀포시가 66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스마트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 삼양1동에 위치한 사택 부지(2360㎡)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42억5000만원에 매각 입찰 공고를 냈지만 11차례나 유찰됐다.

하지만 한전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전력지사 옛 사옥의 가치는 주변 같은 입지의 토지 거래가에 기초해 가격을 추산했을 때 45억원에서 47억원 사이 정도(㎡당 300만원 가량)인데 한전은 10억 이상 평가 절하해 급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잠식이 해결하기 위해 핵심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졸속 매각하는 행위는 매입자에게만 이익이 될뿐 국민과 정부에게는 손해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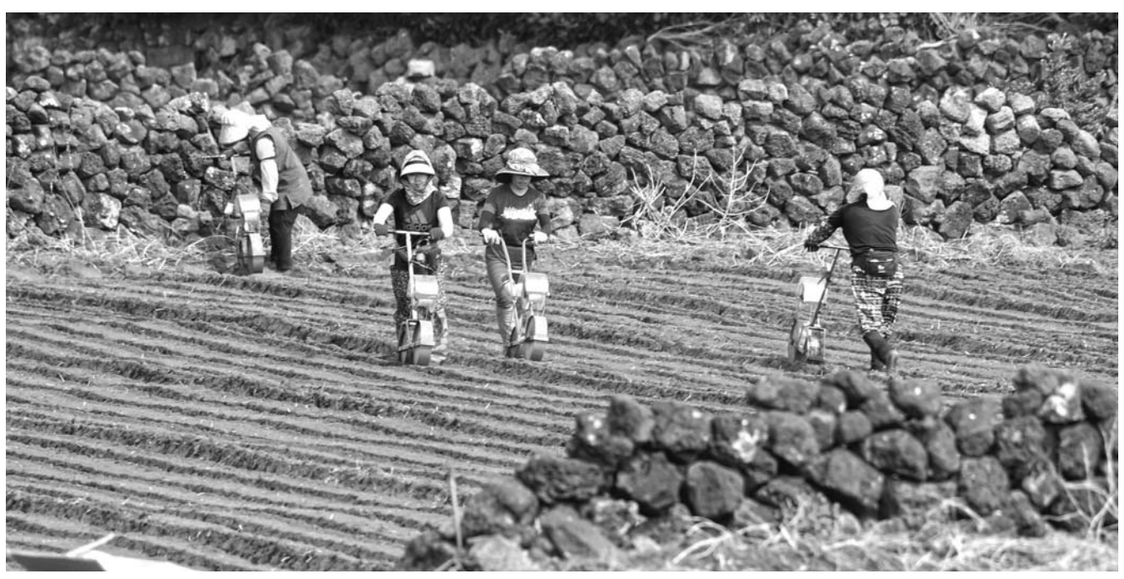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한전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전력지사 옛 사옥 매각의 경우는 1년반 넘게 추진한 부분으로 급매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며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 비용 지출 삭감 등 관리가능한 영역에 대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혁신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27곳에 대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해양쓰레기 팝업 전시 ‘필터’ 내달 2~22일 이호테우해변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이호동주민센터,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는 해양쓰레기 팝업 전시 ‘필터(Filter·必터)’를 오는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 내 이슈 중 하나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전시를 통해 의미있게 재탄생시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박소정기자



무 파종하는 농촌 28일 제주시 구좌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무 파종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이상국기자

고금리·고환율에 가계·기업 경기전망 ‘비관’

9월 제주 소비자심리지수 89.5로 전달보다 4.2p ↓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8… 전분기 대비 13p ↓

제주지역 가계와 중소기업 모두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도내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9.5로, 전월 대비 4.2포인트(p) 감소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42로 전달보다 2p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5월(143) 이후 5개월 연속 140을 웃돌고 있다.

물가상황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다. 1년 후 물가전망에 대한 인식인 물가수준전망CSI는 151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2p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 6월(160)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도 7월(158), 8월(153)에 이어 석달 연속 150을 웃돌고 있다.

2020년 후반부터 발생한 도내 주택가격의 거품은 꺼질 것으로 내다보는 도민이 많았다. 주택가격전망CSI는 78로 전달보다 13p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 5월(76) 이후 28개월만에 최저치다.

또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8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해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문미숙기자

도외 직업훈련 청년 모집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2월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은 마감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 15세 미취업 도민이다.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과 교육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면 1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은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되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문의 064-805-3335. 박소정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엠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